

선택받은 도구로 살아가기 OPERATING AS CHOSEN INSTRUMENTS

By C.C. Simpson

시장은 순식간에 실체를 드러냅니다. 거래가 무산되기도 하고, 신뢰하던 리더가 떠나기도 합니다. 실적은 떨어지고, 이사회는 당장 해명을 요구합니다. 팀원들은 당신의 표정을 읽으며 반응을 살피고, 집에서도 압박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은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대화들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다.'

The marketplace exposes weight fast. A deal falls apart. A trusted leader walks away. The numbers dip. The board wants answers now. Your team is watching you, trying to read your face. At home, the pressure does not let up. Decisions wait. Conversations linger. And somewhere in the middle of it all, the thought creeps in and will not leave: *This is too much for me.*

바로 그 순간이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짐작적으로 "이 짐은 너무 무겁고, 나는 감당하기엔 너무 약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그 짐은 잘못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정확히 헤아려져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That moment tells you something. Not just about the situation, but about what you believe. We assume the weight is too heavy and we are too weak. That is the reflex. But what if that is not true? What if the weight is not misplaced? What if it were measured?

성경은 압박을 피해 도망치려는 우리의 본능을 끊임없이 거스릅니다. 노아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배신과 긴 기다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한 입과 지팡이 하나만 들고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바꾸려는 적대적인 체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그 무게를 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 속에서 다듬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Scripture keeps pressing against our instinct to run from pressure. Noah carried the burden of obedience when no one else understood. Joseph bore betrayal and delay before stepping into leadership. Moses stood before Pharaoh with a stutter and a staff. Daniel held his ground in a hostile system that wanted to reshape him. These were not men who avoided weight. They were men shaped under it.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15).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것입니다. 도구는 단지 편리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Paul may be the clearest example. Once a persecutor, now a preacher. When the Lord called him, He did not speak vaguely. He said,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Acts 9:15). Not random. Not accidental. Chosen. An instrument is not picked because it is convenient. *It is picked because it fits.*

바울의 사고방식, 훈련, 인내심, 심지어 그의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빚어졌습니다. 맡겨진 사명은 무거웠지만, 결코 무모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는 그 사명에 꼭 맞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선택된 도구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모두가 불안해할 때 분명함을 드러내고, 모두가 압박이 심해질 때 평안을 유지하며,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긍휼을 나타냅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끝까지 버티는 강인함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무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Paul's mind, his training, his endurance, even his past, all of it was forged into something God could use. The assignment was heavy, but it was not careless. The instrument matched the mission. That is how God works. Chosen instruments carry what the moment requires. Sometimes that looks like clarity when everyone else is anxious. Sometimes it is calm when pressure spikes. Sometimes it is compassion when people are worn thin. Sometimes it is grit when quitting starts to sound reasonable. The weight reveals what has been built in you.

바울은 압박을 이론으로만 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썸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8).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고난은 실제였지만, 그것이 바울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게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빚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aul knew pressure. Not theory. Reality. He wrote, *"We are afflicted in every way,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driven to despair"* (2 Corinthians 4:8). That is formation. The strain was real, but it did not own him. The weight did not break him because God had already been shaping him to bear it. The same is true for you.

당신이 힘든 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훈련들, 심지어 스스로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상처들까지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도구를 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할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따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느낀다고 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성급히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짐이 사라지기만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며, 압박 속에서도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서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The lessons you learned the hard way. The disciplines formed when no one was watching. Even the wounds you would never have chosen. None of it is wasted. God does not build instruments blindly. He

knows exactly what will be required, and He prepares accordingly. So, if you feel the weight, do not rush to assume something is wrong. It may be that something has been entrusted to you. Before you ask for the burden to lift, ask for the strength to carry it well. Ask for wisdom. Ask for endurance. Ask for clarity in the middle of pressure. God does not call and then step back. He equips. He sustains. He finishes what He starts.

그 무게는 분명 실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당신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주어진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때론 무너지느냐 이끌어가느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The weight may be real. But it is not random. The same God who placed this moment in front of you is the One who prepared you to stand in it. You are not carrying something arbitrary. *You are carrying something assigned.* And sometimes, the difference between breaking and leading is simply believing that what God placed on your shoulders was not a mistake. It is a calling.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지금 당신의 일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기를 통해 당신을 선택받은 도구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Where are you feeling the greatest weight right now in your work or personal life, and how might God be using this season to shape you as a chosen instrument rather than simply testing your limits?

2. 현재 겪고 있는 압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단지 장애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무게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In what ways are you tempted to see your current pressures as obstacles rather than assignments from the Lord, and how would your perspective change if you believed the weight was entrusted to you?

3.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어떤 경험, 훈련, 혹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사용하셨습니까?

Looking back over your life, what experiences, disciplines, or even painful seasons has God used to prepare you for the responsibilities you carry today?

4.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로서 깊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사도행전 9:15; 고린도후서 4:8).

이번 주에는 자신의 힘만으로 짐을 지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은혜에 의지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나눠 보십시오.

Paul endured deep hardship as a chosen instrument of God (Acts 9:15; 2 Corinthians 4:8). What would it look like this week to depend on God's strengthening grace instead of trying to carry the weight on your own strength alone?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사도행전 9:15; 로마서 5:3-5; 고린도후서 4:7-10; 빌립보서 4:13; 베드로전서 4:10-11

Acts 9:15; Romans 5:3-5; 2 Corinthians 4:7-10; Philippians 4:13; 1 Peter 4:10-11

- **(사도행전 9:15)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 **(로마서 5:3-5)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고린도후서 4:7-10)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빌립보서 4:13)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베드로전서 4:10-11)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이번 주에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먼저 그 짐을 없애 달라고 구하기보다, 그 짐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Identify one area this week where the weight feels heaviest and bring it honestly before the Lord. Instead of asking first for the burden to be removed, ask Him to strengthen you to carry it faithfully.

그리고 그 부담을 지회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나누고, 함께 기도와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키셨음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그 책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Share that burden with your team or a trusted discipleship partner and invite their prayer support and counsel. Then step into the responsibility with steadiness, trusting that if God entrusted it to you, He has also equipped you for it.